

[서식3]

독도동아리(지독한 사랑)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지독한 사랑
<p>❖ 목적</p> <p>독도에 대한 인식확산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과 끊임없는 침탈위협에 대해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독도에 대한 관심 갖기, 독도 홍보하기, 독도 바로알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역량을 기른다. 아침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모임을 갖고, 주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을 갖고 친목을 도모하기도 함.</p> <p>❖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p> <p>학교에서 구매해 주신 독도티를 생활복으로 입고 다니면서 항상 독도에 대해 생각을 했고, 독도 등고선을 만들면서 독도의 지형에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독도 6행시도 써보고, 제9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에 전체가 참여하여 독도에 대한 글쓰기를 하면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섰다. 또한 독도 설문조사와 결과분석에 적극 앞장서서 도표로 정리하여 도서관앞에 전시하여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확산에 노력.</p> <p>❖ 특색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p> <p>독도 선도학교를 하면서 동아리 팀장인 장서영양은 학교 동아리 전체를 대표하는 팀장으로서 PPT작성이나,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도표작성에 적극 앞장섰으며, 독도 선도 학교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광주에 있는 독도전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과 독도에 대한 현황을 둘러보고 왔다. 또한 독도 포스터와 6행시 대회 결과물을 주도적으로 판넬에 전시하여 학부모 수업공개의 날 전시도 하고, 신문도 만들어서 전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늘 독도를 생각하게 함.</p> <p>❖ 주요 성과</p> <p>제9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에 팀원 전체가 참여하여 정민지 학생은 전라남도도지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학교 전체가 창체 동아리 시간을 이용하여 독도 플래시 몹을 배우고 연습하기도 하였고, 음악시간에는 ‘홀로 아리랑’을 연습하면서 늘 독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체육대회와 학교 축제 때 플래시 몹과 오카리나 연주를 학부모님과 지역사회분들께 선보일 예정이다.</p> <p>❖ 소감 및 일반화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보다 독도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다는 걸 깨달았고, 독도에 대해 배운 게 많아서 좋았다. 동아리를 계속 한다면 더 재밌고 유익한 활동을 하고 싶다. 2. 독도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게 많은데, 신기한 것도 많았고, 무언가 팀원끼리 만들고 나면 보람찼다. 독도를 지켜주시는 독도 경비대원님들께 감사함을 느꼈다. 3. 처음엔 독도 동아리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점점 독도에 대해 배우다 보니 독도의 소중함과 독도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4. 학교 선택과목이나 창체 동아리 시간으로 아예 독도를 반학기 정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의 열정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거의 다 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